



가온나래

발행일 : 2024년 10월 11일

발행인 : 교 장 심우일

감수인 : 교 감 위선옥

편집인 : 사서교사 윤복래

시흥가온중학교 도서관

♥ 도서관 이용 안내 ♥

- ♥ 학생증을 이용해서 도서 대출을 합니다.
- ♥ 도서관 이용 시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 1인 3권, 대출 기간 14일, 도서 도우미, 다독 학생 1인 5권, 1회 7일간 연장 가능
 - 참고도서와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외한 모든 단행본 자료는 대출 가능
 - 다음의 자료는 도서실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관외 대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도서(백과사전 및 도감류), 교양 및 학술 잡지, 각종 미디어 자료(DVD), 만화자료, 정기간행물
- ♥ 대출 절차 - 대출하고자 하는 책을 서가에서 고른 후 학생증과 책을 대출대에 올려놓습니다.
- ♥ 반납 절차 - 반납할 때는 도서실에 직접 반납하거나 반납함에 넣는다. 반납할 때는 학생증 필요하지 않아요.



♥ 가을 마주하기 ♥



〈가을 편지〉

이해인

하늘 향한 그리움에
눈이 맑아지고
사람 향한 그리움에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

순하고도 단호한
바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며
산길을 걷다 보면

톡, 하고 떨어지는
조그만 도토리 하나

내 안에 조심스레 익어가는
참회의 기도를 닮았네

♥ 2024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 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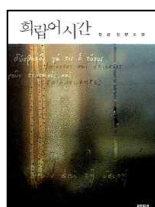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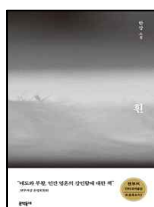


▶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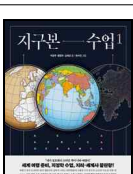
1993년 「문학과사회」에 시가,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붉은 닻』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후 소설집 『여수의 사랑』(1995년) 장편 『검은 사슴』(1998년)을 통해 드러나듯이 '인간의 근원적인 슬픔과 외로움을 보여주는' 작품을 발표해왔다. 작가 한승원 씨의 딸이기도 하다. 데뷔 당시 젊다는 이미지의 1970년생의 작가라는 말이 나오며 주목을 받았지만, 한강은 신세대 작가답지 않은 정통적 소설문법과 섬세한 감수성, 그리고 비극적 세계관을 특징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한강은 2016년 5월 16일, 자신의 세 번째 장편소설 『채식주의자』로 한국인 최초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다. 맨부커상 선정위원회는 "압축적이고 정교하고 충격적인 소설이 아름다움과 공포의 기묘한 조화를 보여줬다"고 『채식주의자』의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강은 터키의 오르한 파묵과 중국의 옌렌커, 앙골라의 호세 에두아르도 아구아루사, 이탈리아의 엘레나 페란트, 오스트리아의 로베르트 제탈러 등 총 6명의 작가가 최종 후보로 올라 경쟁했다. 『채식주의자』는 2007년에 출간된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 불꽃' 등 소설 3편을 하나로 연결한 연작 소설집이다.

〈한강의 작품 및 관련 도서〉

- 출생: 1970.11.27.
광주
- 국적: 대한민국
- 직업: 소설가
- 학력: 연세대 국문과
- 수상내역:
맨부커상(2016)
노벨문학상(2024)



가온나래 도서관 신간 안내

책표지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책 소 개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김종원	퍼스트 펍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은 저자가 처음으로 쓴 청소년을 위한 인생철학 에세이다. '나'라는 존재와 친구와의 관계, 공부와 성적, 꿈과 진로 등에 관한 고민이 커지는 청소년기에 어떤 생각을 키우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삶의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기에 저자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온 마음을 담았다.
	찬란한 멸종	이정모	문학동네	'지구의 역사'와 '인류 대멸종'을 주제로 강의해 화제를 모았던 이정모 저자가 46억 년 지구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스토리텔링 한 책으로 인류가 멸망한 2150년 인공능력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화성 테라포밍을 실행한 2100년, 지구에 아직 빙하가 남은 2024년,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하기까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생생한 도판과 함께 엮어낸다.
	네가 되어 줄게	조남주	문학동네	'작가 조남주의'굴의 맛'에 이은 두 번째 청소년소설 『네가 되어 줄게』출간. 『굴의 맛』에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막막함 속 중학교 3학년을 앞두고 '별스러운 약속'을 한 네 아이들의 속사정을 그려냈다면, 이번 작품에선 '별스러운 알'이 물고 온 엄마와 딸의 인생 2악장 조바꿈을 그림, 연문 체인지와 '타임 슬립' 설정은 엄마와 딸 사이 오해를 허무는 통로.
	죽이고 싶은 아이 2	이꽃님	우리학교	이꽃님의 『죽이고 싶은 아이』, 그 두 번째 이야기. 『죽이고 싶은 아이』의 명성을 고스란히 잇는, 기대 그 이상의 완벽한 속편의 모습으로 『죽이고 싶은 아이 2』는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의 그 순간에서 다시 시작한다. 마침내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이 낱알이 밝혀지며 이야기는 절정에 이르고,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데....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차인표	제딿	고국을 떠나 70년 만에 필리핀의 한 작은 섬에서 발견된 쑤니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담은 이야기이다. 작가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채 가난하고 핍박받던 시절을 맴돌며 버텨 낸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의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남기고자 집필을 시작했다. 10년의 집필 기간 동안 진정성과 사실에 근거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소설로 완성하였다.
	지구본 수업 1, 2	박정주 황동하 김재인	그림씨	이 책 《지구본 수업(1·2)》은 평면 지도가 어쩔 수 없이 지닌 왜곡과 한계를 걸어내고, 진짜 지구와 세계의 모습을 담았다. 입체적 지구본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로 생생한 지구본 도판을 비롯한 200여 컷의 다채로운 지도와 240여 컷의 풍성한 역사·문화 도판들을 함께 수록해 입체적인 '지구 전체사'로 통합해냈다.

